한라시론

‘철학도 윤리도 없는’ 부모에게 자녀의 성공이란?

김 용 성
시인·번역가·교사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이 연일 화제다. 그 아들이 제주 출신 동급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고 하는데, 정순신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점 인권감독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말문이 막힌다. 서울대 나온 검사 출신 아버지, 민족사관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재학 중인 아들, 분명 남이 보면 이들은 ‘성공’한 삶인데 뭐가 잘못돼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됐을까? 교육적 관점에서 논해본다.

우선 올바른 ‘철학’ 없이 ‘자녀 성공’에만 매달릴 경우 이는 사회적인 병폐가 될 뿐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게 돼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같이 소위 배운 사람들이 교육을 차갑게 ‘사익 극대화’의 수단으로만 악용해버리면 우리 사회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 불신과 냉소에 빠지고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순신 전 검사가 자녀의 서울대 입학에 불이익이 없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져가면서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이다. 법 지식만 머리에 가득 찼을 뿐, 양심이나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기회에 교육이 그동안 ‘차가운 머리’에만 초점을 맞춰온 건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배우는가? 교육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철학’을 바탕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공부만 잘한다고 저절로 ‘따뜻한 가슴’이 채워지는 건 아니다. 교육이 잘 되면 개인 그리고 사회가 성장하리라는 믿음, 이 믿음엔 개인에 대한 인간성 존중과 사회에 대한 신뢰와 화합이 전제돼 있다.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 교육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되물어볼 일이다. 입시교육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철학이나 윤리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진 않은가? 사회구성원 간 복잡한 이해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번 사건처럼 교육을 통해 무장한 ‘기술’로 상대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면 우리 사회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가슴’을 살리는 교육, 진짜 ‘사람다운 사람’ 교육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다 ‘교육 관계자’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시선과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왜 그 말도 안 되는 언어폭력을 했을까? 스스로를 철학적·윤리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모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평소 ‘생각이 반듯한’ 가정교육을 못 받은 탓이 크다. 부모에게 ‘자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없었던 걸까?

사설

항일운동가 ‘공적 발굴·서훈’ 서둘러야

어제는 제104주년 3·1절이었다. 3·1운동은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민족의 저항이자 대한민국의 건립을 알리는 운동이었다.

제주에서도 항일운동은 노도같이 번졌고 그 중심에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이 있었다. 1931년 6월부터 1932년 1월까지 연인원 1만7130명이 참여했다. 집회 및 시위 횟수가 238회에 달하는 대규모 항일운동이었다. 해녀들뿐 아니라 청년과 일반 농민층도 가담하여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쟁했다. 국내 최대의 여성 주도 항일투쟁이자 집단적 어민봉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일제의 생존권 수탈에 항거한 해녀항일운동은 5명의 해녀 대표가 주도했다. 주역 가운데 부춘화·김옥련·부덕량 3명의 해녀는 유공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고차동·김계석 해녀는 당시 수형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년 광복절 경축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의 해녀항일운동 대표를 모두 언급했는데도 서훈받지 못했다. 제주지역 항일운동가는 50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201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고차동·김계석 해녀 등을 포함해 나머지 304명에 대한 서훈은 미완으로 남아있다.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유공자들에 대한 공적 발굴과 서훈은 지체할 수 없다. 유공자 후손들이 사망하거나 고령화로 항일활동 공적을 규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유공자 후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이나 보훈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젠 결판내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로드맵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고, 과업 단계별로 연구와 공론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

특히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보다 많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과업 단계별로 16개 지역에서 도민 경청회를 48회 진행하기로 했다. 도민참여단 300명을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숙의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숙의토론은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없애고 2개 행정시를 뒀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득보단 실이 많다는 등의 비판 여론으로 민선5기때부터 개편 논의는 도지사들의 단골 공약이 됐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피로도는 높은 실정이다.

‘산 넘어 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주민투표 시행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11월 주민투표안 제시까지 모범답안을 챙겨 정면 돌파를 하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든지 하는 도민 공론화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 25시

태영호 논란과 총선

부 미 현
정치부 차장
bu8385@ihalla.com

국민의힘은 지난달 13일 제주에서 3월 8일 전당대회의 첫 지역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제주를 첫 합동연설회 지역으로 선정한 배경을 두고 “제주에서는 17대 총선 이후 20년간, 서귀포 지역에선 24년 동안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우리 국회의원을 배출해 제주에서도 압승을 거둬야겠다고 다짐하며 합동연설회를 제주에서 처음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설회는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 파문에 묻혀버렸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 의원은 “제주4·3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지탄받았다. 태 의원이 설명을 보탤수록 논란은 커졌다.

연설회를 내년 총선 반전의 계기로 기대했던 제주도당의 실망감은 역력했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첫 연설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게 돼 기대감이 컸는데 돌출발언이 나와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험지인데 태 의원이 걱정거리를 보탠 셈이다.

이번 일 이후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인 A씨는 내년 총선 제주 선거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별로 기대감이 없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 당 대표 후보 중 한 명의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B씨 역시 “제주 총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내년 제주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뉴스-in

“온라인 보고 방식 MZ세대 공직자 호응”

제주시 메신저 보고 변화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강병삼 시장의 제안으로 시행한 공직 내부 메신저(e-메아리) 활용 온라인 보고 문화가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

제주시는 MZ세대 젊은 공직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난 두 달간 540건의 메신저 보고가 이뤄졌고 이는 주어진 업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민 행정 서비스에 매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

제주시 관계자는 1일 “현재는 본청 중심이지만 앞으로 읍면동의 참여율을 높여 실용주의적 보고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 만큼 공직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 중심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첨언. 진선희기자

가계대출 전례없이 줄어

○…제주도내 대출자들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난해 가계대출이 전례없이 전년보다 감소.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6조864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조6373억원으로 4.0% 증가한 반면 기타가계대출 잔액은 11조2274억원으로 8.3% 줄어든 것으로 집계.

그동안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기준금리의 연속 6차례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치솟자 가계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부터 먼저 갚아나간 영향으로 분석. 문미숙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화방(향년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2일

아 들 윤태정 며느리 오정선
은정
상은 고은주
딸 윤선순 사 위 박용현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항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종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봉신(주식회사 금도상사 대표·향년 6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3월 2일

부 인 김 정 희
아 들 고 광 표
딸 고 유 리
사 위 박 광 진

차고지/주차장
市의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 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 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